민주노조재건금속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금속민투위

민주노조 재건!
노동탄압 분쇄!
현장권력 쟁취!
20년임투승리!
고용안정쟁취!

■ 발행인 : 의장 김 태 곤 ■ 발행처 : 선전실(29-17호) ■ 게시기간 : 09월 26일까지 ■ 게시확인 : 대의원 황 형 모

사측은 잔치판, 조합원은 실망을 넘어 자포자기

힘찬 부결로 노동조합을 조합원 편으로

부결해봐야 겨우 상품권 20~30만인데 자포자기하고 "찬성" 하시겠습니까?

부결을

선택하는 것은 상품권20~30만원을 더 받자는 것이 결코아닙니다. 사측에게 십수년 세뇌 당한것에 대한 저항이고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찬성'은 이후 더 참혹한 내용으로 돌아온다

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면 고민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결을 선택하자. 사측의 더러운 계략에 말려 **"더 해봐야 별 반찬 없다"**며 자포자기해 찬성을 찍거나 투표를 포기하면 앞날은 더욱더 참담한 내용이 우리 앞에 놓일 것이다.

20년 단체교섭에서 사측은 원하는 품질·생산성 향상과 대의원들의 현장권력까지 헌납받았다. 이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어떤 결과로 돌아오겠는가?

당당한 부결로 돈 몇푼, 상품권 몇장이 아닌 **이후 우리들의 현장을 우리들의 힘으로 지켜내는 가슴 벅찬 출발을 25일(금) 당차게 시작 해보자**.

코로나-19에 편승해 사측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8대집행부를 **"사측 편이 아닌 조합원의 편"**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또한 당당한 부결에서 출발한다.

5만조합원들의 총 단결로 사측만 잔치판인 20년 임협 잠정합의 "부결" 로 박살내자!